



KIA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왼쪽)과 아담 윌러(오른쪽)가 25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진행된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외인 원투펀치’ 첫 등판...타이거즈 V13 ‘시동’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네일, 한화와 연습경기 2이닝 5탈삼진 “체인지업 연마 중”
배탈 증세 딛고 2이닝 퍼펙트 윌러 “이닝 이터로 활약할 것”

KIA 타이거즈의 ‘외인 원투펀치’가 연패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는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진행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에 이어 새얼굴인 ‘빅리거’ 아담 윌러가 캠프 첫 실전을 소화하면서 마운드에서 선이 쏠렸다.

네일과 윌러는 첫 피칭에서 나란히 150km와 153km를 찍으면서 힘을 보여줬다.

네일은 2이닝 동안 11명을 상대하면서 27개의 공을 던졌다. 5피안타로 1실점은 했지만 5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투심(7개) 최고 150km를 기록했고, 커브(119~124km), 체인지업(134~140km) 그리고 스윙퍼(131~134km)를 구사했다.

1회 첫 타자 이진영에게 중전안타를 내준 네일은 암투전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프리일에 우측 2루타를 허용한 뒤에는 노시환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투아웃을 만들었다. 채은성은 중견수 플라이로 잡고 1회를 끝냈다.

2회 시작과 함께 초구에 안치훈에게 2루타를 내준 네일은 관공민을 상대로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냈다. 네일은 이재원과 심우준에게 연속 2루타를 허용하면서 1실점을 했지만, 이진영과 임중찬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고 첫 등판을 끝냈다. 스윙퍼와 체인지업이 네일의 시즌 준비에 중요한 구종이다.

네일하면 우선 떠오르는 구종이 스윙퍼다. 지난 시즌 위력적인 스윙퍼로 KBO리그를 점령한 그는 더 치밀해질 상대를 대처하기 위해 체인지업을 준

비하고 있다.

네일은 “스윙퍼는 가장 자신 있고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구종이다. 그래서 다른 구종을 연마하는 데 더 신경 썼다. 체인지업을 더 던지려고 했다”고 말했다.

네일은 미국 어바인 캠프에서도 그립을 바꾼 체인지업을 가장 공들여 준비했다. 체인지업 준비는 진행형이다. 2회 장타를 연달아 허용하자 네일은 결국 가장 자신 있는 스윙퍼를 꺼내 들었다.

“스윙퍼 비중을 줄어보려고 했다. 체인지업과 비중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맞으면서 스윙퍼를 더 던졌다”며 웃은 네일은 “연습했던 것들을 하려고 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체인지업을 하려고 한다. 시즌 중에 선보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첫발을 내디딘 네일은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해 2025시즌을 맞을 계획이다.

네일은 “2년 연속 우승하는 게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다. 비시즌 잘 보냈고, 준비 잘했다. 팀에 젊은 선수들이 많다. 팀 메이트이자 리더로 젊은 투수들이 이끄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의 ‘형’ 역할을 하면서 우승 전면에 설 각오다.

네일은 “선수들이 형이라고 부른다(웃음). 위즈덤과 윌러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아한다”며 “경기나 팬들 KBO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음식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 즐기면서 이곳에 적응하고 그러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윌러도 ‘책임감’으로 예정대로 마운드에 올랐다. 윌러는 이를 전 배탈이 나면서 완벽한 컨디션이 아

니었다. 팀은 좋은 컨디션에서 등판을 소화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했지만 윌러가 오케이 사인을 내면서 이날 등판이 이뤄졌다.

이날 13개의 직구를 던진 윌러의 최고 구속은 153km, 평균 구속은 151km이었다. 그는 슬라이더(140km·17개), 커브(130~131km·3개), 스윙퍼(131~135km·4개)도 점검했다. 6명의 타자를 상대한 윌러는 2개의 탈삼진을 더한 2이닝 퍼펙트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윌러는 “배탈이 났었는데 등판 스케줄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휴식일을 보내면서 괜찮아졌다. 바뀐 필요가 없었다. 시즌을 보내면서 항상 100%일 수는 없다. 100%가 아닐 때도 해야 한다. 부상을 당해서 다치지 않은 이상 나가서 싸워야 한다”며 “실제 상대를 두고 경기를 해서 흥분되고 재미있었다”고 등판 소감을 밝혔다.

KBO 공인구로 던지는 첫 실전. 장단점을 잘 활용해 KBO 도전에 나서게 된다.

윌러는 “KBO볼은 더 작고 심은 더 크다. 더 끈적 거러기도 해서 변화구에는 회전수도 더 좋았다. 패스트볼에는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변화구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파이어블러의 모습을 보여준 그는 ‘이닝이터’로도 활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윌러는 “미국에 있을 때 이닝이터 역할을 많이 했다. 대학 시절에도 가장 많은 이닝 먹은 선수 순위에 들기도 했던 만큼 이닝에 자신 있다”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몸이 괜찮으면 많은 이닝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선발 투수로 책임감을 가지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간절한 윤도현 “4할 치겠다”

부상 딛고 들어선 타석 남달라
김태군, 벌금 내기로 후배 독려

KIA 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사진)에게 한 타석 한 타석이 간절하다.

KIA는 지난 22일 일본 히로시마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했다. 실전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만큼 선수들의 마음도 남달라다.

더 치열해진 경쟁 속 한 타석, 공 하나가 간절하다.

부상 악몽을 지우는 뜨거운 가을을 보냈던 윤도현에게도 타석의 가치는 특별하다. 지난해 경험한 1군 무대를 다시 밟기 위한 아찔 무대, 여기에 김태군 선배가 매의 눈으로 윤도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김태군과의 내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캠프에서 김태군은 윤도현에게 미션을 주었다. 멀티히트 이상일 때는 용돈을 주고, 하나에 그칠 경우에는 반대로 벌금을 내라는 게 김태군의 이야기였다.

첫 내기에서 후배가 무안타에 그치자 김태군은 멀티히트로 조건을 완화해 줬고, 윤도현은 홈런으로 멀티히트를 완성하면서 용돈을 받았다.

올해도 김태군은 윤도현에게 목표를 제시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0.350 이상을 치면 배트 세 자루, 0.360 이상이면 배트 하드 케이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0.350을 못 넘기면 김태군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김태군은 “KIA 팬들이 도현이를 많이 기대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다. 판은 깔려 있다”며 “또 예전처럼 선배후배 정이 오가는 시대가 아닌데 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내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후배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목표를 제시하고, 동료들과의 정도 나누고 싶은 선배 김태군의 바람. 그는 후배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자신 있게 과감하게 보여주라고 주문했다.

김태군은 “안 다지려고 너무 몸을 사리면 오



히려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과감하게 하는 게 오히려 안 다친다. 준비한 만큼 본능적으로 나와야 한다. 준비한 것 못 보여주면 아깝다”고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는 첫 타석 안타 뒤 3타석에서 빈손으로 돌아섰다.

윤도현은 “작년에 호주 있을 때도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방망이를 주시기도 했다. 못 치면 용돈 드려야하는 데 잘 해보겠다. 지금은 수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wool@kwangju.co.kr

LPGA 시즌 상금 1위 김아림 2승 도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7일 개막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의 갑판은 김아림(사진)이다.

이번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김아림은 두 번째 출전 대회였던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서 공동 6위에 올라 2개 대회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볼과 2개 대회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김아림은 톱10 진입률 100%에 상금랭킹 1위,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 CME 그로브 포인트 2위, 그리고 평균 타수 3위(67.38타)에 올라 있다.

김아림의 상승세는 작년과 확 달라진 경기력 덕분이다.

김아림은 한국에서 뭘 때부터 남다른 장타력으로 주목받았으나 섬세한 플레이에는 능하지 못했다.

미국에 진출해서도 김아림은 장타력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경기력에는 큰 발전이 없어 보였다.

지난해 김아림은 장타 9위였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은 131위에 그쳤다. 그런 적중률도 신통치 않아

서 44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장타 순위 9위로 여전히 멀리 치는데 페어웨이 안착률은 11위(82.14%)로 높아졌다. 그런 적중률은 9위(82.64%)로 경중 뛰었다.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는 드로 구질을 주로 구사하던 김아림이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지는 페이드 구질로 바꾸면서 탄도와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

더 극적인 변화는 그린에서 나타났다.

작년 김아림의 라운드당 퍼트 개수는 30.12개로 86위였다. 미국 진출 이후에 한 번도 30개 안쪽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순위도 80위 밖이었다.

올해는 28.75개로 14위까지 올랐다. 정규타수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을 때 평균 퍼트 개수는 1.69개로 5위에 자리 잡았다.

장타에 세기까지 갖춘 셈이다.

김아림은 오는 27일부터 나올 동안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 코스(파72)에서 열리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240만달러)에 출전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경기력에 물이 오른 만큼 우승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 대회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우승한 고진영은 대회 최다승을 노린다.

2008년 시작한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2번 우승한 선수는 고진영과 박인비 둘뿐이다. 고진영이 우승하면 대회 사상 최초로 3번 우승하는 금자탑을 세운다.

2021년 우승자 김효주와 유해란, 양희영, 최혜진, 임진희, 안나린, 신지은, 이미향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시범경기서 홈런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외야수 이정후(26)가 시범경기에서 홈런포를 터뜨렸다.

이정후는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킵스데일의 스킵스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정후는 팀이 0-1로 뒤진 1회말 첫 타석에서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나와 초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을 날렸다.

상대 투수는 선발로 나온 우완 체이스 달랜더로 아직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는 선수다.

이정후가 미국 무대에서 홈런을 때린 것은 지난해 4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정후는 지난해 시범경기에서도 홈런 1개를 기록했고, 정규 시즌 때는 홈런 2개를 외야 담 밖으로 보냈다.

지난해 5월 경기 도중 어깨를 다쳐 시즌을 일찍 마감한 이정후는 23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범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러 3타수 1안타를 쳤다.

이날 이정후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했고, 5회에는 좌익수 뜬공으로 잡힌 뒤 다음 수비 때 교체됐다.

/연합뉴스